

식당 종이컵, 금지 철회...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도 연장

환경부 “종이컵 규제하는 나라 없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짊어져”
종이빨대 대체품 품질 개선 노력
종료시점, 상황 고려해 추후 결정



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뉴시스

정부가 7일 상점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못하게 막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우리나라도 종이컵을 일회용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은 유예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련 소상공인 부담 해소방안’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고, 규제에 앞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기존 정책의 일부 선회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다만 일부 국가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있었다”고 전했다. 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규제를 결국엔 철회했다. 또 일부 국가는 하위법령 입법이 미비한 탓에 실제로 규제하는 데 실패했다.

이어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일회

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의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 언급했다.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소상공인 고충 토로 내용도 전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완전 철회는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종이컵보다는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해 환경부는 “일부 사업자가 규정 준수를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계도기간 중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협약 등 국제동향 및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민간발전업계, 안정적 에너지공급 해달라”

강경성 산업2차관, 에너지업계와 소통

의회(11.1)를 만났다.

정부가 민간발전업계 대표들을 만나 올 겨울 차질없는 에너지공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발전사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문제가 없다면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다짐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7일 주요 민간발전 및 열병합에너지 사업자와의 소통 간담회에서 “민간발전업계가 전기와 열 등 민생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올 겨울도 철저한 대비로 공급에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가 에너지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강 차관은 앞서 정유업계(8.17), 에너지산업 협단체(10.5), 가스업계(10.12), 에너지신산업계(10.24), 에너지 공기업 기술혁신 협

이날 간담회에는 SK E&S 추형욱 사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진혁 에너지부부장, 강릉에코파워 장용창 사장, 고성그린파워 김우용 사장, GS E&R 김석환 사장, 한화에너지 김영욱 부사장 등 발전업계 중 석탄, LNG, 열병합 등 주요 분야 기업 6개사가 참가했다.

민간 발전사들은 2022년 기준 우리 석탄발전량의 16.5%, LNG 발전량의 67.4%를 차지하는 등 국가 전체 전력수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석 기업들은 올 겨울철 안정적 전력공급이 중요한 가운데 차질 없는 연료수급과 설비관리로 국민 생활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요 LNG 발전사들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LNG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액상형 세탁세제, 1회 비용 최대 8.2배 차이

소비자원, 세탁세제 12개 시험·평가
다우니·커클랜드 세척력 가장 우수
1회 세탁 시, 겔업 40원·다우니 328원



한국소비자원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반 세탁기용 액상 세탁세제 품질 비교시험 결과, 세척력과 경제성에서 제품별 차이를 보였고 안전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은 표시가 부적합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액상형 세탁세제 1회 세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최대 8.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 성능은 다우니와 커클랜드 두 브랜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일반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겔업(에코트리)·노브랜드(이마트)·다우니(한국 피앤지판매유한회사)·리큐(애경산업)·비트(라이온코리아)·아토세이프(아토세이프)·액츠(피죤)·세제혁명(비엔디생활건강)·커클랜드(코스트코 코리아)·탐사(씨피엘비)·테크(엘지생활건강)·퍼실(헨켈홈케어코리아) 제품(제품명 가나다순)이다.

먼저, 3가지 오염에 대한 각각의 세척 성능 시험에서 다우니와 커클랜드 두 브랜드 제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묻을 수 있는 기름, 흙 등 오염물에 대한 시험에서는 다우니·리큐·커클랜드 3개 제품, 쉽게 지워지지 않는 혈액, 잉크 등 오염물 세척 평가에선 다우니·커클랜드·퍼실 3개 제품, 인체에서 분비되는 피지 등 오염물 세척 시험에서는 다우니·리큐·커클랜드 3개 제품 세척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1회 세탁 비용은 최저 40원에서 최대 328원으로 제품 간 최대 8.2배 차이가 났다. 세탁물 3.5kg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겔업 제품

이 4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노브랜드(53원), 탐사(65원), 액츠(89원), 아토세이프(96원), 리큐(103원), 비트(111원), 커클랜드(143원), 세제혁명(169원), 테크(175원), 퍼실(217원), 다우니(328원) 순이었다.

세탁 시 옷의 염료가 빠져 색이 옅어지는 변화를 방지하는 정도와,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이염을 방지하는 정도에 대한 시험에서는 시험대상 전 제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올 177건 발생

(1월~10월까지)

국표원-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7일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을 맞아, 매년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안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전기매트·전기장판·전기요 등 전기매트류 화재사고는 2020년 242건, 2021년 179건, 2022년 242건 발생했고, 올해 1월~10월까지 177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시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해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韓-사우디, ‘중소·스타트업 협력 로드맵’ 논의

이영 장관-사우디 중소기업장 양자회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 중소기업의 상호 진출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이 7일 서울에서 사우디의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사이니 중소기업청장과 ‘한-사우디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로드맵’ 수립 논의 등을 위한 양자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알후사이니 중소기업청장이 우리나라의 대표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3’에 참석차 방한하면서 성사됐다.

이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을 계기로 개소한 리야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7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미 빈 이브라힘 알후사이니(Sami bin Ibrahim Alhussaini) 사우디 중소기업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중기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 등을 로드맵 의제로 제안했다. 사우디측은 2024년 사우디에서 개최되는 기업가정신 월드컵에 한국이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함에 따라 양 기관은 구체적 협력방안과 일정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장애인고용공-고려대, ESG·고용확대 맞손

고용서비스 제공해 ESG 실천 지원

공단 조항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고려대학교에 다양한 장애인 직무를 발굴하여 교육 분야에 모범사례를 만들고 지속적인 장애인 채용 노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의 가치와 성과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7일 고려대와 ‘사회적 가치 구현 및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고려대 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과 긍정적 인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단은 장애인의 적합 직무를 분석하여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각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고용을 통한 고려대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실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학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대학의 장애학생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대학에서의 장애인 근로자 확대 및 적합 직무 개발 등 장애 친화적인 근로 환경 모델을 만들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